

# 에너지부를 신설하라



이해익 원장 :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·CEO칼럼니스트

-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,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
- (전)진로그룹 이사·캠브리지총괄전무,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
-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
- (검임)한국팔기회고문,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,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
- 서울상대졸업 011-241-8558, haeikrhee@hotmail.com

지난 5월의 당·청간담회는 한마디로 임기말 동상이몽이었다.

백신·부동산·반도체·기후변화·남북대화 등 다섯가지 '송영길표 정책아젠다'도 제시했다. 원전 등 민감한 사안도 거론했다. "바이든 정부가 탄소중립화를 위해 SMR(소형모듈 원자로)분야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"며 한·미의 전략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. 깊이 공감한다. 탈원전은 워낙 협소하고 경박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.

정권초 80%이상의 지지율이 30%대로 급감한 이유와 2030세대의 10~20%대의 지지율에 대한 이유에 크게 반성하는 회견이어야 했다. 특히 다섯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.

첫째, "지난 4년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문제"라며 "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"고 했다. 죽비를 맞은 정도가 아니다.

임대차3법 시행직전 자신의 소유 강남아파트 전세값을 14% 올려 받은게 알려져 지난 3월 갑자기 퇴임한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의 "다른 경제정책 성공해도 부동산 실패하면 모든 게 뿔!"이라고 공언한 것이 진실이기 때문이다. 4년 내내 '집값을 잡겠다'고 공언한 것이 허언이 됐기 때문이다.

둘째, 지각백신에 대해 "좀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"정도여선 안된다. 현장의 애로와 불만과는 거리가 크기 때문이다. 또 페레즈 이스라엘 경제장관의 "백신이 곧 경제의 최고부양책"이라는 말이 현실이 아닌가.

셋째, 대북협상도 무조건 북쪽의 집권층에 대해 참고 아부 비슷한 입장을 취하는 게 능사는 절대 아니다. 잘·잘못을 정확히 집어주는 게 한·미동맹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에도 최선이기 때문이다.

넷째, "백신 안 급하다"던 암관리학자를 청와대 비서실에 방역기획관을 신설해 앉히는 인사는 크게 문제가 아닐 수 없다. 위인 설판이기 때문이다.

다섯째, 탈원전에 대한 절박한 반성이 있어야 했다. 금년초 빌 게이츠 조차 "한국, 탄소

제로하려면 원전 필요하다"고 강조했다. INCC(국제원자력협력센터)에 의하면 발전원별 CO<sup>2</sup> 배출량(g/kwh)이 석탄991, 석유782, 태양광54, 풍력14, 원자력10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.

이미 유럽(EU)은 재작년에, 미국 민주당도 48년만에 작년 '원자력지지'로 입장을 선회했다. 대단한 혁신이었다. 2030년까지 전체전력의 80%를 청정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다.

중국 또한 원전강국으로 달리고 있다. 한국은 이미 APR-1400이라는 안전성, 경제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계 최고의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까지 한 나라다. 이제 SMR(소형모듈원자로)을 다시 출범시켜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인류의 큰 고민거리인 기후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한다. 월성1호기 폐기를 철저히 반성해야 했다. 사막도 없는 나라에서 태양광은 비효율이다.

풍력 또한 독일에서는 이웃에 두지 못하게 주민들 반대가 심한 시스템이다. 이런 종합적인 국가대안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처럼 전문적이고 역량있는 '에너지부를 신설'해서 온 힘을 쏟아야 한다.

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

통 화 명			7월 9일 (금)	7월 12일 (월)	7월 13일 (화)	7월 14일 (수)	7월 15일 (목)
미	달	러 (USD)	1143.40	1148.30	1146.40	1145.10	1150.30
일	본	엔 (JPY)	1041.21	1042.35	1039.02	1035.40	1045.87
캐	나	다 달 러 (CAD)	911.91	922.48	920.32	914.98	919.58
홍	콩	달 러 (HKD)	147.20	147.83	147.61	147.45	148.11
위	안	화 (CNH)	176.51	176.91	177.00	176.88	177.51
유	로	화 (EUR)	1354.24	1363.61	1360.03	1348.76	1361.61
호	주	달 러 (AUD)	849.49	860.13	857.34	852.36	860.83
싱	가	폴 달 러 (SGD)	845.24	849.81	848.15	844.81	850.09
말	레	이 시 아 링 기 트 (MYR)	273.44	274.02	273.51	273.16	273.85